

# Yullin Newsletter

DEC.

# 12

열린교회 신문 2022.12 vol.330



말씀솔루션

## 한 아기의 탄생에 목숨 걸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놀라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천 년 이상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시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불의한 모든 사조와 타락한 종교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 본문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오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심령이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한 시대에 동포들과 함께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오백 년 넘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존재하며 압제와 환난을 당하였고 그러한 사이에 그들의 신앙도 급격히 하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정치적으로 잘 타협해서 독립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참된 위로는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시각이었고, 복음의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한 아이의 태어남에 달렸다는 것, 이것이 시므온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슬픔의 궁극적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기에 이에 대한 참된 위로와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도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므온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며 삶과 시선이 고정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께 묶여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

### <성탄시리즈1>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경배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경배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강보에 싸인 그리스도/성탄의 두가지 의미/아기 예수를 찾아간 목자들/예수가 오신 것은/그 이름 예수/성탄절에 물어야 할 질문들/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목자들에게 들린 기쁜 소식 12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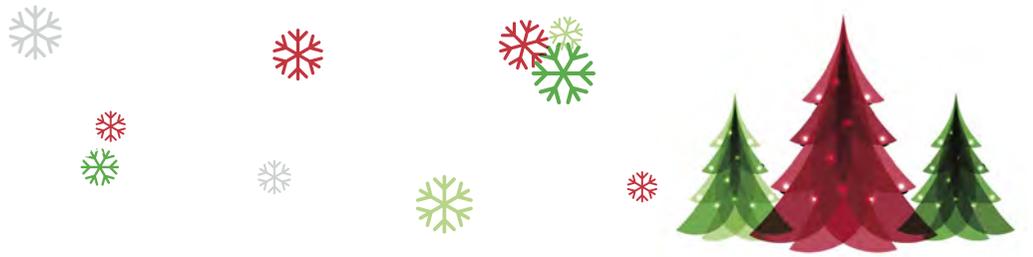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김남준 담임목사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욘 22:21-22)

### 들어가는 말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도 순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욘은 그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욘의 시련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것이며 이 시련을 통해서 욘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옵는(욘42:5),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거대한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욘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욘을 비난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욘의 친구들은 욘이 형벌을 받는 이유가 욘의 죄악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 친구가 인과응보적으로 욘의 고난을 해석한 점에서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살림은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해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교훈을 받으라

첫째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

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는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이웃이 누구이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 마음의 변화

우리는 종종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삶의 사태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왜 나는 이토록 괴로움과 고난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될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마음의 원망까지도 간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수학공식처럼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해서 인생을 다 살아보기 전에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할 것을 아시면서도 강박한 마음을 녹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 말씀을 마음에 두라

둘째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말씀들을 네 마음에 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발화된 말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언어나 심지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까지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사랑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합

니다. 하라, 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문자 이상의 생각을 전해 주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본문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가 깃드는 자리입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선인의 마음에는 선이, 의인의 마음에는 정의가 가득하여서 다양한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고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적은 지식이라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마음의 평안과  
사람과의 평화가 실현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어야

들은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질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  
속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도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적용하고 실천하라

가장 긴 장거리의 여행이 머리에서 시작하여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머리에서 마음까지 못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자신의 심령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삶으로 지

### 맺는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자원이 한없이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듭처럼 얽혀서 혼란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사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로 인해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림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

### ☎ 담임목사 동성

- 12.1 서울신학교 종강예배 설교
- 12.7-9 교역자수련회
- 12.11 새가족 환영축제
- 12.17 잠실 송파동교회 위임예배 설교
- 12.18 정기당회
- 12.25 성탄예배
- 12.31 고등부 문화콘서트, 송구영신예배

### 📻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기독교방송 (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기독교방송 (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 나의 목자'
- 포항기독교방송 (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기독교방송 (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기독교방송 (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기독교방송 (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기독교방송 (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혜의 강가로'

### 🌐 인터넷 설교방송

· 기독교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교사수련회 후기

# 교사,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



나은경 중등부교사  
eworld0925@daum.net

저는 2022년 중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이 직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모두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교사 직분이 무척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에 있는 순수한 마음에 잘 감동해서일 것입니다.

올해 열린교회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당연히 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등부 사역은 처음인지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이 글을 쓰는 시간도 무척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번 제 상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교사 수련회는 연차별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년 차 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섬기는 부서는 모두 달라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똑같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눔을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왜 그리 아름답던지요. 특히 조별 활동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협동함으로써 나름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진행되었던 터라 자모실 안은 금방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조는 고등부를 섬기는 청년 교사가 있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저 때와는 다르게 스펙을 쌓아야 취직에 유리하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던 저에게는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선교세미나 후기

# 오늘의 일터에서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라



장정수 장년5교구  
ora.jjang@naver.com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직장선교 세미나가 3년 만에 <오늘의 일터에서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개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만 아니라 직장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장선교의 중심이었던 신우회 활동마저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는 직장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오랜만에 현장에 함께 모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에 푸리던도서관에서 열린교회 직장인 중 사전신청자 4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직장사역연구소 소장으로 섬기시는 원용일 목사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일터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며 크리스천 정체성을 드러내고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기쁘게 조별 활동을 해서 그랬을까요? 저희 4조가 당당히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담임목사님과 하는 토크쇼뿐만 아니라 홍민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시간까지도 뜨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주일에 집에서 오전 9시에 나와 저녁 9시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긴 시간 동안 피곤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토크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예배하는 교사, 변함없이 소통하는 교사, 변함없이 고민하는 교사였습니다. 제가 일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너무도 공감되고 목사님의 탁월한 예시와 설명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고, 담임목사님께 부여된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다음에 홍민기 목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성세대의 목사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척이나 탁월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엄마이자 선생님으로서 섬기며 제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른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면 많은 것들을 가르치

려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욱 그 성향이 강해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다는 그 말에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나 합리화로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의 핵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정확한 항해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단단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선생님들이 현재 열매를 볼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더욱 뜨겁게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사라는 직분에 막중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먼저 일터 선교사의 444 작전 코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다니엘이 해결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사명 완수를 위한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며, 함께 세상을 구할 사람을 얻은 다니엘을 소개하며 어떻게 일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다. 이를 위해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보여준 믿음과 경건생활을 본받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 한 사람을 품고 일터 속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 왕의 마음을 얻었을 것임을 말씀하시며, 신우회 모임보다도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특히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함을 말씀하셨다.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 각자의 일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임에도 열정적으로 나누는 모습 가운데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많은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과 신앙의 조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법은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포기한 채 '007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오늘의 일터에서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나라를 우리의 일터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등불학교 후기

# 소금으로 사는 법



유치부 백하임

저는 이번 등불학교에 참여하여 '마음 지킴'과 '문화'가 가장 머릿속에 남았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마음을 잘 지키려고 다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나 영상을 표절하지 않고 문화가 주는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란 것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과 화목하고, 예수님을 만나 행복했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금의 삶을 살고 싶어요. 대중문화라는 어려운 내용을 연극으로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신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년부 유세림

처음에는 등불학교 영상이 재미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신청했는데 전도사님들의 연극 영상도 있고 공과시간에 파스텔 소금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스탠드도 만드는 등등 재미있는 공과가 많아서 너무 재미있었다. 항상 너무 일찍 끝나는 느낌이 드는 날이 많았다. 특히 영상에서 케이와 무나가 실수를 많이 겪으며 알아가고 여러 가지 멋진 직업을 하는 것이 좋았고 케이와 영똥할 때가 가장 웃기다.

요즘 나는 십자가가 자꾸만 궁금하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전도사님은 나쁜 생각,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소금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으로 살자고 하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소금으로 살고 싶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



이 기뻐하신다.

이번 등불학교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기대하며 잠들고 좋은 꿈을 꿀 때가 많아서 행복했다. 이렇게 일찍 끝나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25기 등불학교도 기대된다. ☆



초등부 손누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등불학교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등불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인사도 해주고 잘 챙겨주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설교를 적고 요절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조금 힘들었고 몇 번 빼먹기도 했지만, 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기억하고 많은 성경구절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그동안 나의 마음이 강박했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소금처럼 맛을 내며 자신을 희생하는 소금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음악활동 시간에 찬양과 가요를 번갈아 가며 들으며 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 찬양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요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듣는다 하더라도 조심하며 듣고 되도록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종강예배를 드릴 때는 등불학교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번 등불학교는 매주 과제를 더 열심히 하고 특히 매일 성경을 기쁘게 읽겠습니다! ☆



소년부 김가은

등불학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을 쌓게 해줬습니다. 또 재밌고 많은 활동이 있어서, 이번 등불학교도 기쁘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불학교에 있는 설교요약이나 매일 말씀읽기 숙제가 있어서 좀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주 차부터 7주 차까지 잘 마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등불학교에서는 '세상의 대중문화와 소금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금은 여러 요리를 할 때나 목감기가 걸렸을 때,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맛을 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공유해서 많

은 사람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설교자, 전도사, 교사가 되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나라를 가꾸는 데에는 다른 다양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는 무기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군인들이 먹을 음식, 입을 옷, 목을 텐트, 상처를 치료할 의료기구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찬양을 위해 작곡을 할 수 있는 작곡가도 필요하고,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어에 업로드할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각양각색의 백성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가꾸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좋은 스토리텔링이 담긴 영화로 예수님에 대해 알리며 멋진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등불학교에서 느낀 점은 세상의 대중문화만 열심히 따라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소금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 같습니다. 7주차 등불교실에서 봤던 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호기심만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 호기심을 갖고 체험해보니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성, 즉 욕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갈수록 그것 때문에 타락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등불학교에서 영상들을 보고 공과도 하고 교리, 등불교실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고 괴롭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죄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나 죄를 멀리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세상, 학교, 학원 등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

12월 추천도서

## 주 안에 거하라 앤드류 머레이 저 / CLC(기독교문서선교회)

CLC가 새롭게 기획한 "앤드류 머레이 신앙강좌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 『주 안에 거하라』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나, 그것은 능력 밖의 일이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도와주려는 열망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는 어린이처럼, 우리는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걸음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알라딘)



## 새가족

▶▶ 장년

- 백석봉(39) 이용현(96) 손원일(83)
- 김행혜(41) 김초원(89) 전성경(87)
- 김남용(75) 강신영(86) 이하늘(92)
- 황현영(75) 홍지현(86) 김가희(92)
- 한재혁(89) 이하나(79)
- 김은지(89) 지해천(51)
- 김경화(69) 안현준(86)
- 유미금(71) 박정아(88)

▶▶ 청년

- 권오하(83)
- 강류이(98)
- 서인선(84)
- 윤세아(86)
- 박은향(98)

강도사인허 후기

# 설교자의 두려움과 기쁨



김수민 청년부 목양국 담당  
shoumindavid@gmail.com



여러 사람이 강도사가 된 소감을 물어왔습니다. 지금도 강도사가 된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강도사가 된 소감으로 떠오르는 말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강도사 인허를 받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나,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설교 사역은 계속 해왔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말할 만한 소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처음 설교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고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장을 썼다 지웠다 하며 고뇌하였고, 한 문장을 작성할 때마다 그 문장에 담긴 설교자의 동기를 점검하며 첫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 원고를 들고 설교단에 섰을 때 느꼈던 떨림을 잊지 못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느꼈던 좌절감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설교의 경험치가 쌓이면 설교하는 것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 이후로 설교는 계속 해왔고, 열린교회에서도 유치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것이 큰 두려움과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설교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설교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영혼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고, 구원은 받았으나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아름다운 진리를 설교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느껴지는 죄송스러운 마음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의 기쁨도 있습니다. 설교가 기쁨인 이유는 첫째로 설교자가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교자는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큰 특권입니다.

설교가 기쁨인 두 번째 이유는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설교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토머스 브래드버리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는 교리적인 성격을 띠며, 마음속에서는 체험적인 성격을 띠고, 삶 속에서는 실천적인 성격을 띤다." 제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설교자,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설할 수 있는 설교

자가 되도록,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설교자가 되도록,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대를 잘 분별하며 적용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부족한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신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그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주신 유치부 공동체와 청년부 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더욱 겸손한 태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도록 사역하겠습니다. ☆

## 2023년 교회학교 교사모집



- 방법: 본관 1층과 본관 3층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또는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간: 12월 31일까지
- 모집: 미취학부(영아, 유아, 유치부), 취학부(유년, 초등, 소년부), 청소년부(중등, 고등부), 사랑부
- 자격: 담임교사는 교리반 수료자, 보조교사는 성장반 이상 수료자
- 문의: 박재현 목사

## 교회 소식

### 장년교구 전체 구역장 특강

11월 13일 장년교구 전체 구역장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의 강사 고려신학대학원장 최승락 교수는 복음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사람들과 다르게,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 온유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구역장들이 이를 구역모임에서 실천하기를 권했습니다.

### 동서울노회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 감사예배

11월 18일에는 동서울노회의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를 초청하여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새가족실에서 드린 예배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이후 노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원로 대표의 인사 말씀과 교제, 연주와 특송으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고려신학대학원 신학생 후원을 위한 일일차집

11월 20일 고려신학대학원 신학생 후원을 위한 일일차집을 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 신학생을 돕기 위해 온 성도가 동참하여 다양한 먹거리로 후원 기금을 마련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연합금요기도회

11월 18일(금)에 본관 3층에서 청장년 교구가 연합금요기도회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담임목사님

은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심'을 주제로 설교하였고. 이어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웃을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고신대 동서방기독교문화연구회 제7회 학술세미나

고신대 동서방기독교문화연구회 제7회 학술세미나가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교계의 인사들과 학자들이 기독교 교전과 신학, 철학 및 역사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이어 논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전도대원의 날

- 일시: 11월 29일 (화) 오전 10시부터
- 장소: 본관 1층 예배실
- 내용: 2022년 지역전도사역 결산 및 2023년을 위한 기도회
- 문의: 박순정 권사

### 2023 신입 제직 대상자 면담

- 일시: 12월 3일(토) 오후 4시
- 장소: 본관 2층 대세미나실 1
- 문의: 목양센터 조복령 간사

### 2023년 기도사역 헌신자 모집

- 신청 부분: 수요섬김기도/ 릴레이기도/ 강단기도
- 신청 기간: 12월 18일(주일)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본관 로비) 및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구글 폼 이용)
- 문의: 김부덕 권사

### 교정선교 위원회 봉사자 모집

- 섬김내용: 재소자 교정서신 발송(매월) / 안양교도소 소모임 상담사역(연5회) / 안양교도소 대집회 예배사역(연 1-2회)
- 문의: 김운경 권사



## 12월 주요사역

- 12월 7일(수) - 9일(금) 하반기 교역자수련회
- 12월 11일(주일) 29주년 창립기념주일 / 새가족환영축제
- 12월 18일(주일) 정기당회
- 12월 24일(토) 성탄 축하의 밤
- 12월 25일(주일) 성탄절 / 정기제직회
- 12월 31일(토) 송구영신예배 / 청년부 송년의 밤 / 고등부 문화콘서트

등대학교 후기: 고등부

# 성경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다



우중원 고등부 2학년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부에서 등대학교가 진행되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길 기대하며 등대학교에 임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나에게 등대학교는 그 고민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좋은 기회였다.

1주 차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이론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뿐이며 성경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이 기독교 세계관 이론 교육의 핵심이었다.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리는 성경임을 내 가치관의 기저에 두고 다음 교육들을 받게 되었다.



2주 차 대학 탐방 이후, 3주 차 '크리스천으로 공부하기'를 주제로 한 이명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평소 공부를 할 때 문득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지?'라는 막연한 의문이 들곤 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공부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임을 이명호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 배웠고 나의 막연한 의문 역시 해소되었다.

또한 이명호 목사님께서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포기'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나 역

시 포기해서는 안 됨을 깊이 느꼈다. 소망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나의 힘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은 하나



남게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공부하는 나에게 수단이며 공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4주 차에는 신현관 목사님께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주셨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시기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자는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두 번의 특강이 나에게 큰 고민을 가져다주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나의 진로에 관한 고민은 등대학교 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등대학교를 기점으로 흔들리던 고민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 고민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두 번의 특강이 현재 나의 보이는 모습에 극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도 나의 생각, 그리고 미래 나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신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직업박람회도 진행되었다. 평소에 관

심을 가지고 있던 직업들을 선택해 그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우리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크리스천으로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매 주차의 마무리는 항상 조별모임이었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모여 그날의 활동을 통해 느낀 것들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나에게 다시 돌아보고 그날 가졌던 활동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다. 특별히 담당 선생님이셨던 임재은 선생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조언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나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것들을 던져 주었다.



이번 등대학교는 고민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여러 활동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된 후 곧바로 따라오는 것은 고민들이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올바른 나의 모습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 고민들이 나의 생각을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등대학교를 경험할 기회가 남은 친구들은 등대학교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길 바란다. ☆

등대학교 후기: 중등부

# 평일 일상이 주일 예배와 합쳐지다



최원이 중등부 1학년

처음 등대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오로지 내 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나와 오빠에게 전부터 이거 한번 신청해보라 여러 번 권했었지만 그냥 넘겼었고, 토요일마다 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갔는데 마침 등대학교의 공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신청 마지막이라고 하길래 서둘러 신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작하게 되었는데 면접을 봐야 한다 해서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면접 봐주신 강도사님이 면접은 우리의 적극성을 주로 보는 면담이라 하셨고 간단한 말을 주고 받았습시다.

면접을 본 모두가 등대학교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첫째 날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첫째 주에 아무 생각 없이 등대학교에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앞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등대학교의 일정표를 봤을 때 꽤 많은 걸 하는구나... 하면서 무척 긴 시간이 될 거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빠르게 훑하

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들었던 이명호 목사님의 '크리스천으로 공부하기'와 신현관 목사님의 '직업과 소명'은 우리의 공부, 진로를 신앙과 연결 지어 유익한 설명이 되었고 직업박람회, 대학탐방은 함께 즐기면서 다 같이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등대학교를 하며 처음 시작한 경건생활, 그 신앙생활은 저의 하루 기도습관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일과 하나하나에 들어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분리되어있던 평일의 일상과 교회의 일이 합쳐지는 것 같았고 그것들을 분리해선 안 된다는 등대학교 강의도 생각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씩 얻어가며 신앙의 삶을 걷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저의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영년6교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경주자(교역자칼럼)2

# 은혜의 그 자리로



이월순 선교센터  
tam5928@gmail.com

찬바람이 스쳐 지난 가을의 쓸쓸함에 가슴 한구석이 구멍 난 듯한 그 느낌을 아주 어린 나이에 느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니 지난 모든 순간들이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아궁이 앞에 불멍을 때리며 입속에는 치절한 선율이 흘러 나오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고작 9살의 어린 나이에 무슨 한숨이 그리 많았으며 무엇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시간들이었기에 천진 발랄한 생기보다는 서리 맞은 들풀 같았을까? 그때 늘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마냥 마음 붙일 만한 곳이 없었다. 부모님은 갓 태어난 동생과 생계유지에 마음을 쏟았고 나는 어딜 가나 반겨주는 곳이 없었다. 암울한 하늘이 드리워져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방학 때마다 친척 집을 떠돌며 마음의 위안을 찾아 보려고 했으나 모든 환경은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할머니님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녀오라고 했다. 외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가면 병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글 모르는 외할머니를 도와드리라고 나를 보냈다. 그 뒤 외할머니는 집으로 가시고 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할머니님들이 모이는 예배에 계속 참석했다. 그때 불렀던 찬양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등이었다. 반주도, 훌륭한 설교자도 없는 그 가정에서 서너분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나는 주일마다 참석하였다.

아직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노래가 있다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할머니들이 곡을 붙여서 부른 찬양이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부터 나의 입술에는 더 이상 슬픈 노랫가락이 아닌 이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다. 학교생활을 할 때도 중국이란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매야 하는 붉은 넥타이도 거부하

였다. 중학교 다닐 때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일은 교회 가는 아이’로 친구들에게 인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미숙하여 이단의 교회에 빠질 뻔할 때에도 행인들의 잘못된 안내로 불교의 절에 가게 할지언정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선족으로 중국 영혼들을 품게 한 것도, 조선족의 특별한 정체성을 깨닫고 북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 부족한 언어표현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늘 쑥스럽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으로 중국의 문화가 낯선 나에게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까 두려워 “하나님 방학 때마다는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 총신에서 강의하시는 담임목사님의 <목회와 기도>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른 수업보다 과제도 많았지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신학의 지평을 펼쳐주는 그 시간 목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또한 <목자와 양> 설교 시리즈를 청취하는 중에 목양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정처 없이 떠돌던 마음이 목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당시 중국팀 목사님의 소개로 현재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바로 여기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때도 기존에 다니는 교회를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한 섬김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은혜 아니면 질그릇과 같은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은혜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은혜 아니면 어찌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험겨운 매 순간 그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 ☆

### 곰곰이 생각

## 거절하는 성경 읽기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누군가 내게 ‘지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어쩌면 ‘왜 이제서야?’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쩌면 ‘왜 벌써부터?’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러니깐 바로 지금이란 말이지?’라는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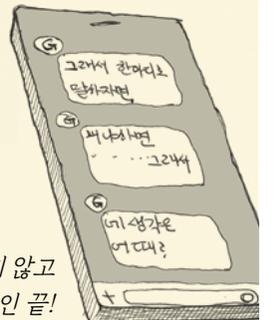
이럴 땐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보낸 이의 의도, 맥락을 알아야 하고 내 입장과 목적에 맞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성경 읽기는 어떨까요? 그저 오늘 분량을 끝냈다는 만족감에 빠지거나 내게 다가올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대화를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문자를 읽었으면 답을 해야지!



문자 보내는 이 폰



오늘도 밀리지 않고 문자 확인 끝!

문자 받는 이 폰

### 유아세례 후기

# 나의 자녀가 하나님나라 자녀 된 기쁨



민예지 장년5교구  
rubi1214@naver.com



남편은 20대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어 유년시절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거나 유아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다. 나는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종교가 다른(개신교, 천주교) 두 부모에게서 자라 일관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방향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이 유아세례는, 같은 신앙을 지닌 부모가 믿음의 2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선언하는 뜻에서 우리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였다.

교육 전 남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에 대해 성찰했고, 기도했다. 또 열린교회 유아세례 후기들을 검색해 읽고, 그분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길 소망했다.

그리고 교육 전 미리 과제 설교를 청취하며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유아세례를 전심을 다해 준비했다.

유아세례 교육은, 육아에 지쳐있던 우리 부부의 머리와 정서를 살아 숨 쉬게 했다. 심신이 메말라 있던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찾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샘물을 다시 길어 올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가는 토요일이면 모든 감각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가족이 다 함께 즐겁고 행복했다.

토요일에는 세례와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주일에는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다 보니, 단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이 집중되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결혼하게 하시

고, 자녀를 갖게 하셨으며, 이제는 그 자녀가 하나님나라의 자녀로 소속되게 하는 은혜까지 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죄송스러움과 동시에 은혜의 감격이 밀려왔고 이러한 감격은 유아세례를 받는 현장에서도 이어져 세례 받는 내내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례를 받고 몇 주가 흘렀지만 세례식의 감격은 아직도 마음속에 이어져 있다. 남편은 ‘우리 혜원이가 세례교인이 되었고, 진정한 열린교회 성도가 되었다’며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쁘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게으름에 잠식되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하며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



만남 품은 열린교인

# 신앙순가락 독립하기

윤혜민 장년교구  
ywlovea@naver.com



2012년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군부대에 근무할 때 저희 가정은 근처 교회를 찾다가 지인 소개로 열린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를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주로 다니게 되었고, 끊임없이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부대 밖으로 나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열린교회였습니다.

당시 담임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 부부는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나오면 눈물을 멈추지 않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지가 화성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전역 후 서울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섬겨온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끝내 재정의 압박을 버티지 못해 임대했던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영적인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멀기는 하지만 이전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었던 경험이 떠올라 다시 열린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8월 등록 후 아내와 저는 성장반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50기 교리반 교육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진리를 꼼꼼히 가르쳐주시는 교회의 배려에 너무나 큰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에 교회에서 온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 교육과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학교 교역자분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등대학교와 등불학교도 잘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했던 부분은 단연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예배에 대한 중요성만 인식했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자세에 대하여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꾸 담임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꾸지람하시고, 예배 태도에 대하여 호통치시고, 강대상을 두드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만큼 집중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오로지 예배의 감격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의 큰 방향을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서울 동쪽에 위치해서 막히지 않을 때 편도로 40~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오가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출발 전 편의점에 들러 맛있는 삼각김밥을 사주며 기분 좋은 출발을 만들고, 양재 IC 부근에서는 이전 교회에서 암송했던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교회에 오가는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기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경회가 있는 주간이면, 막히는 시간에 이동해야 했고, 편도로 1시간 20분씩 걸려 교회를 와야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이성적인 저는 각종 교회 모임에 대면 참석하는 아내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온가족 새벽예배가 있는 날이면, 거의 하루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15년을 넘게 살아온 아내의 모습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담임목사님에게 폭 빠져 저와 아이들이 열린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을 좋아하는 저는 타협을 싫어하는 아내에게 매년 큰 숙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아내가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밥순가락을 이제는 제가 떠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내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는 저의 미숙한 신앙생활을 지금껏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인데... 그 동안 멀어져 있던 주님과 의적대감과 거리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산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도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시고, 저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진리의 선포가 결길로 세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열린교회에 저 또한 아내처럼 잘 정착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의 벽 앞에 매번 타협하는 저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내에게 부끄러운 남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아빠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귀한 말씀으로 매주 섬겨주시는 담임목사님, 신앙적 상담을 잘 들어주시는 교구목사님, 오면 방긋방긋 스마일로 맞아주시는 교구 전도사님, 이것저것 모든 것 챙겨주시는 구역장님께 감사드리며, 같은 강동구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의 동역자 역할을 해주는 귀한 가정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강도사** 김수민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강성경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최영광
-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혜선 조일권

##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